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㉓

我們要之道 所謂照顧話頭 所謂反聞
아문요지도 소위조고화두 소위반문
自性
자성
絶對不是用眼睛來看 也不是用耳朵來聽
절대불시용안정래간 야불시용이타래청
若用眼睛來看 或耳朵來聽
약용안정대간 혹이타래청
便是循聲逐色被物所轉 叫作順流
변시순성축색피물소전 규작순류
若單單的一念在「不生不滅」中 不去
약단단적적일념재 불생불멸 중 불거
循聲逐色
순성축색
就叫作逆流 叫作照顧話頭 也叫作反聞
취규작역류 규작조고화두 야규작반문
自性
자성

우리들은 이른바 화두를 비춘다거나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게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만약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다면 이는 곧 소리와 빛을 쫓아 물건·형상에 휘둘리는 것이라 따라 흐르는 것이라 한다.
만약에 홀로 뚜렷한 한생각이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가운데 소리나 빛을 쫓지 아니하면
이를 거슬림이라 부르고 조고화두, 반문자성이라 부른다.

參禪最要生死心切 和發長遠心
참선최요생사심절 화발장원심
若生死心不切 則疑情不發 功夫做不上
약생사심부절 칙의정불발 공부주불상
若沒有長遠心 則一曝十寒 功夫不成片
약몰유장원심 칙일폭십한 공부불성편
只要有箇長遠切心 眞疑便發
지요유개장원절심 진의변발
眞疑發時 塵勞煩惱不息而自息
진의발시 진로번뇌불식이자식
時節一到 自然水到渠成
시절일도 자연수도거성

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심을 베고 장원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생사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의정이 일어나지 않아 공부가 향상하지 못한다.
만약 장원심이 없다면 하루동안 땡볕을 쐬고 열흘동안 추위에 떠는것과 같아 공부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는다.
오로지 끝까지 밀고 가고, 죽기로 각오한 간절한 마음이어야 참다운 의정이 문득 일어나게 되며
그때라야 진로번뇌는 쉬려하지 않아도 절로 쉬게되니 시절이 도래하면 자연히 물은 도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我說箇親眼看見的故事 給爾們聽
아설개친안간견적고사 급이문청
前清庚子年間 八國聯軍入京
전청경자년간 팔국련군입경
我那時跟光緒帝 慈禧太后們一起走
아나시근광서제 자희태후문일기주
中間有一段徒步的路 往西方面跑
중간유일단도보향협서방면궤
每日跑幾十里路 幾天沒有飯喫
매일궤기십리로 기천몰유반끽

내가 직접 살펴본 옛일을 그대들에게 들려주겠다.
청나라 경자년에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 왔는데 그 때 나는 광서황제와 자희태후 일행을 따라 도보로 협서성 방면으로 피난을 떠났었다.

"생사심 베고 장원심 일으키는 공부 시절 도래하면 물은 도랑을 이룬다"

路上有一箇老百姓進貢了一點番薯藤
노상유일개노백성진공료일점번서등
級光緒帝 他喫了還問那人是甚麼東西
급광서제 타끽료환문나인시심마동서
這麼好喫
저마호끽
竊想皇帝平日好大的架子 多大的威風
이상황제평일호대적가자 다대적위풍
那曾想過幾步路 那曾飽過半頓飯子
나증상과기보로 나증아과반돈두자
那會喫過番薯藤
나회끽과번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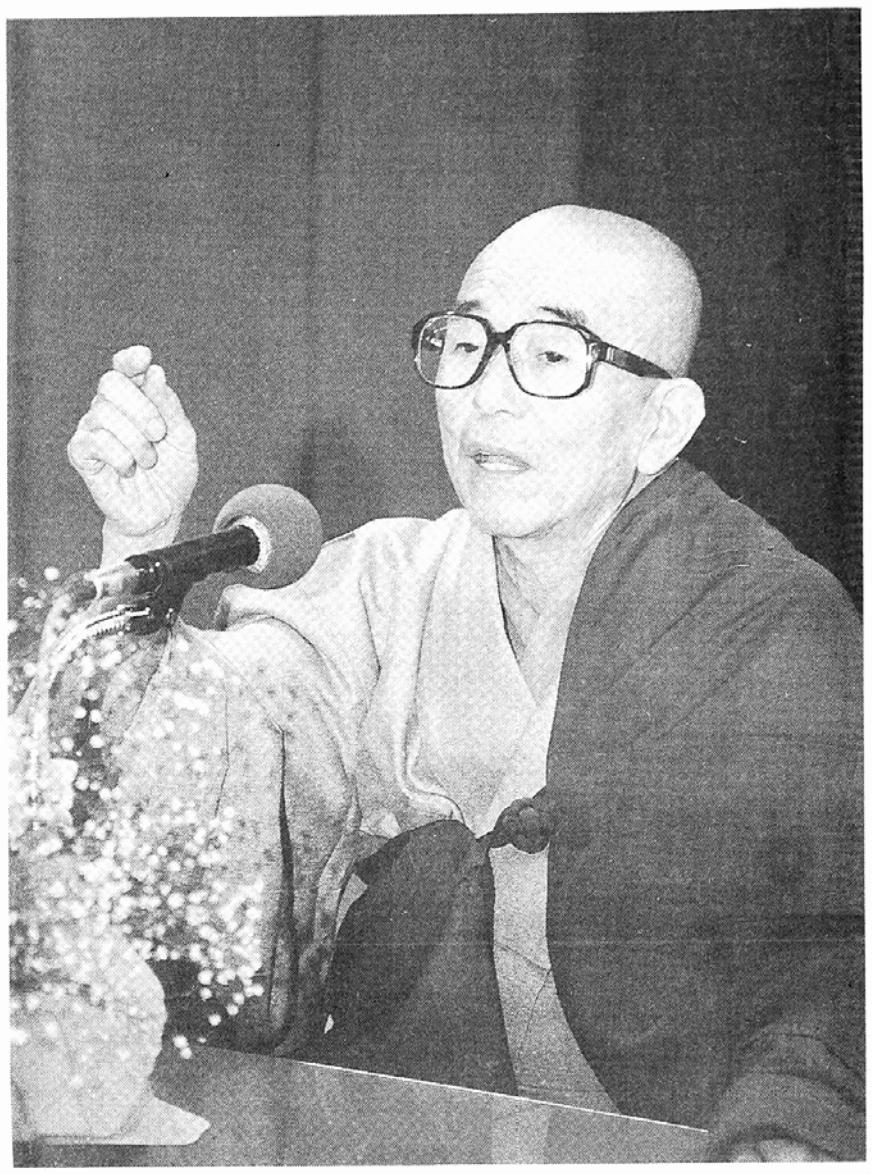
가는 길에 한 노인이 토마토와 고구마를 황제께 올렸다. 황제는 다 자시고 나서 그 노인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인데 이토록 맛이 있느냐" 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았다. 황제는 평소 좋은 가마에 위풍 당당했으니 일찌기 몇 걸음이나 걸어 보았겠으며 일찌기 반끼나마 배를 주려 보았을 것이며 어찌 일찌기 토마토나 고구마 따위를 먹어 보았을 것인가.

龍 眼

★ 지상법석

"선업 짓는 일에 매진하면

종성스님 〈임제선원장〉



약력
- 1930년 전북 부안 生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서 불교학 이수
- 1968년 백양사 서옹스님 문하에 출가후 수선참구
- 임제선풍 현양에 주력하며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辨〉등 논저 발간

불자님들은 '불교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깊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법문을 듣는 것은 즐기면서 '선법문은 어려워서 들어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봉천동에 임제선원이라는 조그만 토굴을 마련하고 사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중에 대학교수 부부가 자주 찾아 오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그 어린 녀석이 어버이를 따라 절에 와서는 스님의 법문도 듣고 어른들 따라 참선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어린녀석에게 물어봅니다. "너 스님 말씀을 알아들나?" 그런데 그 어린녀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는건 알고 모르는건 모르는데요." 참 명답이지요. 어린 아이의 속이 이렇듯 야무집니다. 불교는 어려움 속에 쉽고 쉬운 가운데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려움도 없고 쉬운 것도 없는 것이 불교이고 선인데 그 어렵다는 생각에 발이 묶여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불쌍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 녀석의 대답이면 불교가 어렵다 선법문이 어렵다 하는 불자님들의 푸념을 다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나를 의심하고
부처·조사를 의심하고
법계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풀어지면
팔만세행이 다 내것"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르는 것이 오히려 정칙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알면 모두 다 해탈성불 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모르는 가운데 그걸 알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날 툭 터지는 것이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이 가르치신 참도리입니다.
중국 5가7종의 법안종(法眼宗) 제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스님의 이름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1백권의 〈종경록〉을 저술하신 스님은 문자와 종지에 통달했는데 그 스님의 〈유심결〉 한 구절을 들어 보십시오.
문이불신(聞而不信)이라도 상결불종지인(尙結佛種之因)이요
학이불성(學而不成)이라도 유개인천지복(猶蓋人天之福)이라
불실성불지정인(不失成佛之正因)이고 수호불망자(守護不忘者)는
황문이신학이성(況聞而信學而成)하여 기공덕(基功德)을
기능도량(豈能度量)이리오.
듣고 믿지 않아도 부처의 종자를 맺을 인연을 갖는 것이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복이 인천을 덮을만 하니 부처의 바른 인연을 잃지 않고 수호하는 자는 오히려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룰지니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가 어렵다 선법문이 어렵다 하는 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알건 모르건 듣는 것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니 말입니다. 연수스님은 이 〈유심결〉에서 '선법문이 잠시 귀에만 스쳐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책을 보실때면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어렵다는 함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전해 오는 우리 속담에도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 안간다"는 말이 있으니 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명연수 선사에 대해 잠깐 더 말씀 드릴까요. 그 스님은 출가전에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사를 지냈는데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쯤 되는 벼슬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지사란 큰 겁니다. 그 넓은 땅의 지도자니까요. 아무튼 그는 자사였는데 한 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굶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고(國庫)를 헐어 기민을 구휼해야 할텐데 자사라도 중앙의 허락이 없이는 국고를 헐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당장 굶주린 백성들은 그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참후계(先斬後啓)라. 먼저 국고를 헐어 굶은 백성을 먹이고 난뒤 중앙에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자사는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므로 참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형리가 보니 그 자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나 태연자약하고 얼굴빛이 좋거든요. 형리는 '이런 대인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죄다'라고 다시 상소해 자사를 석방시켰습니다. 자사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불법에 귀의 했던 것입니다. 속세의 그 험난한 흉년에 목숨을 걸고 기민을 구휼하려던 그 그릇이 바로 큰 스님의 그릇이었음을 알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